

녹색성장을 위한 가정경영의 가치와 실천

차 성 란(대전대 교수)

1992년 리우 의제 21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보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함태성, 2009:365).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가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기본법 제 6장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녹색생활의 구심점인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경영의 가치를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 녹색생활의 개념 파악과 더불어, 가정경영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녹색가치, 녹색가치의 실천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법, 정부정책자료 등의 행정관련 자료, 녹색생활의 가치 및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관련 문헌의 2차적 자료를 사용하는 문헌고찰의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환경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를 동일 수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 제 50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3E 즉,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형평성(equity)을 원칙으로 한다. 형평성은 우리 모두의 삶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의식 하에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기준을 지켜내자는 전세계적 약속이다(<http://www.un-documents.net/ocf-02.html#1>). 그러나 우리의 녹색성장에는 ‘모두’를 위한 환경지향 대신 일자리를 포함한 녹색산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기본법 제 2조에 의하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효율적 사용으로 환경훼손을 감소시키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된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외에 세대간, 지역간 자원사용기회의 형평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생활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최소화의 생활에서 나아가 지구생태계가 미래 세대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생태적 속도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영역에서는 생태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치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물’에서 ‘인간’으로, ‘만들기’에서 ‘기르기’로 그리고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가치를 제안한다. 녹색가치의 실천은 ‘문제해결중심’에서 ‘과정즐거기’로, ‘소비’에서 ‘순환’의 생활양식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가정에서 마을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가정경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가치정립과 관련된 교육 및 워킹, 사회조사에 의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